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4년 거래 실적의 10%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가
간에 대외 상환기간이 최고
30일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위원·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윤회전생(輪廻轉生)을 주제로한 드라마 소설 의해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생(前世)을 다룬 창작물 연구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회전생이 방송 출판 등 대중매체를 통해 회자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불교 사상체계의 근간인 인과 윤회를 자연스럽게 알리게 마련이다. 이처럼 인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전생과 내생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생을 소중히 여기고 인과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과거세에 번뇌로 말미암은 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지 여려 업을 지은 까닭에, 그 못했느냐. 산 육신을 잡는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조건이 결합되어 싸에서 싸이 뜨는 것과 같다. (대장경명론)

이 몸과 마음이 갖가지 악을 지으므로, 이 인연으로 하여 생사를 유전해 삼악도에 떨어져 여러 고통을 겪고 후 받게 되는 것이다. (열반경)

무명에서 이끄러 수양을 쌓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모태에서 다른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숫타니파타)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뒷맛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숫타니파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은 과거의 업력이 가식된 현상이며 이를 시사(時時)라 부르고, 의식주가 없어져거나 명예와 복래이 다 되고 불행이 겹쳐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한 것을 비사사(非壽終)라고 한다. (유가론기)

전생의 일을 묻는가, 금생의 바로 이 모습, 내생의 일을 묻는가, 금생에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불설삼세인과경)

소를 잡던 백정이 훗날 부

불교인구 10,387,861명

94년 대비 2%증가... 남성불자 늘어

15세이상 불교 26.3% · 개신교 19.4% · 가톨릭 6.8%

'95 인구 총조사 2% 표본집계

전반적으로 종교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불교인구는 지난 94년 조사때보다 약 2%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불교포교에 밝은 전망을 비추고 있다.

통계청(청장 정재홍)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1995 인구주택 총조사'의 연령 및 성별 종교인구조사 2% 표본추출 집계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총 4천4백55만1천1백83명 가운데 종교인구는 51.1%인 2천2백77만7천8백5명이고 이중 불교인은 1천38만7천8백61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해 여전히 우리나라 제1의 종교로서의 부흥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본추출집계미로 오차 약간 있음).

이중 15세이상 불교인구는 약 8백99만2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6.3%를 차지해 지난 94년 발표된 통계청 종교인구조사(15세이상)때의 24.4%보다 약 1.9%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불교인구는 지난 85년조사 23.7%→ 91년조사 27.7%→ 94년 24.4%→ 95년 26.3%로, 중

간에 약간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증가되는 반가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불교다음으로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개신교(15세이상)도 95년 현재 6백1십여만명(19.4%)으로 94년 조사 18.2%보다 1.2% 늘었다.

가톨릭신도(15세이상)는 2백33만여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 신도수로는 세번째 종교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94년조사 5.9%보다 0.9% 늘어났다.

어린이·청소년 불교인구(19세이하)인을 살펴보면 불교인은 2백13만3천여명으로, 개신교 3백1만8천여명, 가톨릭 92만4천여명 등을 합한 숫자에 비하면 절대숫자상으로도 1백80만명 이상 적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한편 50대이상 불교인은 전체 불교인구의 26.8%를 차지해 개신교(15.7%) 가톨릭(18%)보다 노령층의 두터움도 여전하다. 또한 여자인도비율은 94년 조사때의 28.2%에 비해 3.4% 줄어든 24.8%인데 반해 남자인도는 20.3%에서 1.6%늘어난 21.9%를 차지해 불교의 또하나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사들에 대한 포교전망도 점점 밝아지고 있는 반가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불교대학 설립신청 2곳뿐

62개교중 종교계 27곳... 인재불사 대책 시급

지난 7월 대학설립기준을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발표된 뒤 불교계에서는 단 2곳만이 대학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8월31일 대학설립신청을 마감한 교육부는 모두 62단체 및 개인이 입학정원 1백명 안팎의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한 가운데 종교계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불교는 단 2개교만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신교에서 종교대학으

로 대학 6개, 대학원대학 9개를 신청한 것에 비해 불교계는 태고학원의 '동방불교대학교'와 보문학원의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부처님 참배 조계종 중진스님 10여명 조계종 총회의원 및 집행부 스님등 중진스님 10여명은 지난 8일 오후2시 청와대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 공양물을 올리고 반야심경 독송과 축원했다.

본사사명
이근추 위촉·논설위원 (1996년 9월 1일자)
천미희 명 부산주재 기자 (1999년 9월 12일자)

창간 2주년 3대기획

불교인생을 위한 대변자로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는 불자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오는 10월 15일 창간 2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는 정본적의 불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신행포교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며 창간 2주년 기념 3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획 I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은 115곳의 절터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이 있는 산 전체가 곧 장엄한 법당입니다. 민족의 성지 남산 순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구 부산 지역의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역사와 신심의 향취를 흠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996년 10월 3일 (목) 오전10시
△주관: 현대불교 부산지

사·대구지사
△인솔 현정경의:경주남산 사당모임(김영수·김구석씨)
△참가대상:초중고교 학생과 부모, 대구 부산지역 각 100명 선착순
△순례코스:삼봉골-마애육각불-상사바위-금오봉-용장사터-용장굴(솔라이드 상영 및 남산 특강)
△참가비:1인 1만5천원
△준비물:도시락
△접수:현대불교 부산지사(051-634-5114) 대구지사(053-768-8008)

기획 II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 섬 무국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국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조양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국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른날 선종 본사 수덕사

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일시:1996년10월26일 (토, 음력 9월 보름)-27일 (일) (1박 2일)
△일정
26일:간월암(1박)-고은선생님 특강(월야정진도 가능)
27일:수덕사-방장 원담스님 친견 (주지 방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참가비:1인 4만원

기획 III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불교를 신행하면서 겪은 감동적인 신행담을 공모합니다. 혼자 가슴에 간직해온 소중한 체험을 이번 인연으로 회향하십시오. 여러분의 신행수기는 불자들의 바른 신행에 도움이되고 신심을 복돋을 것입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참가대상:불자면 누구나 가능
△원고마감:1996년 11월 25일
△당선작 발표:1997년 신년호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접수: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기 공모담당자 (전화 (02) 722-4162 팩스 (02) 737-0698)

△참가대상:불자면 누구나 가능
△원고마감:1996년 11월 25일
△당선작 발표:1997년 신년호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접수: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기 공모담당자 (전화 (02) 722-4162 팩스 (02) 737-0698)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한 마음 선원 (禪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호
☎ 0343)72-3100 · 1512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남시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자유인의 길을 일러 주신 부처님의 법을을 전파하는 일의 시급성은 불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외부와 문을 닫고 사는 불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불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강조해 오신 대행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이번 큰법회는 우리 모두에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합장

고라는것, 그것은 결코 피할 대상도 싫다거나 좋다거나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묵연히 수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놓고 가면 가는대로놓는 중에 그것이 마음 바탕과 돌아오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때 고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주제 :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 일시 : 불기2540년 9월 15일 오후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전국비구니회, 군불교진흥회, 파라미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회프로그램 안내

1. 식전 행사(13시 20분~14시)
: 비디오상영·어린이 풍물패 공연·내외빈 입장
2. 법 회 : 「한마음의 인생 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3. 특별 공연 : 연주·국립국악 관현악단(지휘 박범훈)·창·김성녀·합창·한마음선원 합창단

교통수단

전철 : 2호선 성내역 하차 ~ 일반 버스 : 212, 성내역에서 서들 버스 운행 예정
5호선 올림픽역 하차(2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천행 승차)
버스 : 남4문 평화의 문 ~ 일반 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30 / 남2문 ~ 일반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41 / 동2문 ~ 일반버스 : 21-2, 67, 813-2 좌석버스:41